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금융허브 조성 메커니즘 규명과 육성에 대한 연구

안순구*

〈요 약〉

본 연구는 부산국제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도약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진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 탐구와 함께 향후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09년 정부의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금융중심지 육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전략이 제안되고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각 정책 및 전략의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허브 생태계 조성 이론에 기반해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주요 금융중심지 정책들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어서 해외금융중심지들의 성장 사례 분석에 활용하였다. 끝으로 규명 메커니즘과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부산국제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금융허브 발전을 위한 육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금융허브 생태계 발전과 육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허브 생태계 이론에 기반해 제시해 금융중심지 조성 및 육성연구에 공헌하였다. 둘째,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지난 정책들을 확인하고 향후 전략 및 정책 개선점에 대해 시사하였다. 셋째,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디지털, 지속가능, 해양금융허브 조성과 상호연계성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제어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육성, 허브경제 및 생태계 조성,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 허브(플랫폼) 생태계 경쟁

논문접수일 : 2024. 02. 26. 1차 수정일 : 2024. 04. 01. 2차 수정일 : 2024. 05. 02. 게재확정일 : 2024. 05. 08.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연구실장, 051-647-9051, E-mail: sg@kbfc.or.kr

I. 서론

2009년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을 종합 금융중심지 그리고 부산을 해양 및 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 이후 15년이 지났다. 그간 주요 성과로는 2014년 문헌금융단지에 BIFC 준공 이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들이 이전하여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조성한 것과 블록체인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수십 개의 핀테크 기업 양성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금융중심지 조성 결과로 부산은 2021년 이후 세계 금융중심지 순위(GFCI)¹⁾에서 30위권에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 저지, 칭다오, 센젠 등 다양한 도시들이 현재 신흥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다수의 주요 해외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고 있어 부산이 동북아시아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및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이전과는 다른 금융중심지 생태계 구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과 최근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생태계가 구성되어 금융중심지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Church, 2018; 김명희 · 이기환 · 양혁준, 2016).

이전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금융중심지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역외금융센터 조성, 세제 정책 완화 등 필요한 정책 및 전략 요소들을 제시하였으나(이종필, 2008; 2011, 이호선, 2016; 김영재 · 박은엽, 2016; 안상진 외 4인, 2022)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각 요소의 메커니즘 규명과 효과에 대한 통합적 프레임워크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역외금융센터 조성과 해외금융기관 유치 등 다수의 정책 제안은 각기 다른 독립적 요소로 구분되어 금융중심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직관적인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 중점 연구 방식은 이전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다양한 개념과 요소들이 연관된 사안에 대해 각각의 전략 원리와 효과에 대해 규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Ahuja and Novelli, 2017; Rietveld and Schilling, 2021; Ahn, 2021). 금융허브 조성에 집중한 이유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핵심내용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²⁾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한 발의되었기 때문이다.³⁾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산 글로벌

1) 영국 컨설팅사 Z/Yen에서 매년 2회 발간하는 국제금융센터 평가지수(Global Financial Centre Index, GFCI) 금융중심지에 관계된 5개 부문(비즈니스 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도시명성)을 평가.

2) 23년 12월 0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대한민국 대통령실 자료, 23.12.06).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허브(플랫폼) 생태계 조성 이론을 기반으로 금융허브 조성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금융중심지와 허브(플랫폼) 연구간의 연계성은 금융중심지의 주요 정의인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매칭’이 플랫폼의 주요 정의와 일치한다는 점과 이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정책들이 플랫폼 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양오석·민상기, 2009; Mainelli, 2006). 이어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해외금융중심지들의 성장 사례를 확인하고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플랫폼 관점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기술한다. 첫째, 금융중심지 발전이 금융허브 생태 조성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언하여 부산 금융중심지 연구에 새로운 관점 및 해석을 제공한다. 둘째, 금융중심지 주요 육성 정책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해 향후 연구와 정책설정을 위해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셋째, 금융허브 조성 메커니즘을 기초로 KDB산업은행 등 추가 정책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과 정책적 제언을 기술한다.

II.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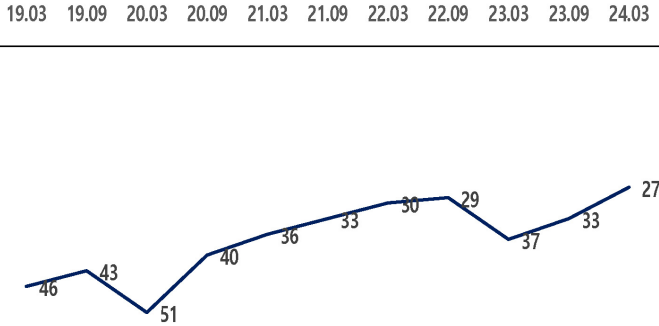
1. 연구 동기

대한민국 정부가 2009년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래 동북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서울시, 부산시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의 주도로 관련 정책과 전략들이 설정되고 추진되어 왔다. 특히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와 물동량을 기초로 해양 및 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설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왔다.

부산을 해양과 파생 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5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문현금융단지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인프라 착공이 2014년 완료되었으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이 이전해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육성을 위해 D-valley(디지털 밸리)로 불리는 디지털 금융 전문 인프라와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전봉민 의원 등 19인에 의해 24년 1월 25일 발의.

[그림 1] 국제금융센터지수에 따른 부산 금융중심지 세계 순위



이와 같은 성과로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후 국제사회에서 부산의 입지 또한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에 소재한 썹크탱크기관인 Z/Yen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 Index)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부산 금융중심지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4년 03월 기준으로 세계 27위를 기록하여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처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해외금융기관 유치와 파생금융기관 신설 및 활성화가 미흡한 등 한계점이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 있음에 따라 해양금융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⁴⁾ 이에 부산이 해양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해양금융생태계는 해운기업과 금융회사들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 실질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산 금융중심지와 연관된 파생금융의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성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연구를 시행한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금융허브 발전을 본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정책적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부산을 양성한다는 비전을 밝히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부산을 물류 허브, 첨단산업허브, 그리고 금융허브로서 조성하며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⁵⁾설립과 특별법 제정⁶⁾을 추진하고 있다.

4) 예를들면 지역은행인 BNK부산은행의 해양금융기능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5)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정부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북항을 포함하는 금융특구를 기회발전특구안으로 24년 3월 신청했다.

6) 23. 01. 25일 발의된 특별법에는 특별법 내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주요 내용으로 금융기관인허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조세특례 및 인센티브 부여, 전문행정기구 설립 등이 담겨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다수의 이전연구가 진행된 만큼 이전 연구들에서 제시한 육성 전략들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기존 전략들의 한계점을 논의한다. 나아가 허브 생태계 조성 이론을 기초로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에 기반하여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은 연구 접근방식은 이전연구(Ahuja and Novelli, 2017; Rietveld and Schilling, 2021; Ahn, 2021)에 기반한 것으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시행해 전략들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과 효과를 밝히는 연구 방법이다. 해당 방식은 복수의 요소가 관여하는 주제에 대해 각 전략 및 요소들의 효과를 밝힐 수 있어 허브 생태계 조성(Rietveld and Schilling, 2021; Gawer, 2014)과 같은 이전 연구들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

다음 섹션에는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이전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이전 연구방법(Ahuja and Novelli, 2017; Rietveld and Schilling, 2021; Ahn, 2021)에 따라 문헌 조사시에 주로 각 연구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제안한 전략과 상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2. 선행 연구

<표 1>과 같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종필(2008, 2011, 2015)의 연구에 의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이종필(2011)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유치와 법·제도 정비를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해외금융기관 유치와 선박펀드 조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을 위해 해외금융기관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부산 금융중심지의 파생금융육성 중요성(이종필, 2008)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유치, 해외금융기관 유치, 선박펀드(이종필, 2011) 등 주요 육성 정책에 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호선(2016)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조성의 필요성과 현재 주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정부 보조금인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실질적인 조세 혜택 제공이 중요함을 기술했으며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재·박수남·김진건(2010)은 해양금융, 파생금융, 역외금융 등 다양한 특화금융 육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부산금융공사 설립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러한 구상은 후속 연구인 김영재·박은엽(2016)과 김영재(2021)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는데 금융특구 설립과 역외허브 시장, 파생상품거래소 도입(김영재, 2021)과 같은 전략들의 시행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표 1>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주요 연구

이전연구	연구방법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방안
이종필(2008)	해외사례 참고	과생금융육성
이종필(2011)	해외사례 참고	공공기관 산하기관 유치, 해외금융기관 유치 선박펀드 조성, 법 제도 정비 지역금융시장 확대, 글로벌 금융기관유치
이종필(2015)	해외사례 참고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 제언(정부기구 → 공적민간기구 단계적 전환)
황영순(2015)	해외사례 참고	위안화 프라이빗 बैं킹, 금융기관 육성
김영재, 박수남, 김진건(2010)	해외사례 참고	특화금융 육성 (과생금융, 해상보험, 외환, 채권, 역외금융 등), 국제적 협력, 부산금융공사 설립
이호선(2016)	해외사례 참고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세계 혜택), 핀테크 육성 규제샌드박스, 금융자유지역 설치
김영재 · 박은엽(2016)	부산 통계자료 참고	부산금융공사 설립, 제도개선(금융특구 추진) 금융혁신클러스터 조성
이기환(2019)	해외사례 참고	해운금융기관 유치, 해운거래소 설립
김명희 · 이기환 · 양혁준 (2016)	문헌조사 및 인터뷰에대한 계층화분석방법(AHP)	해양금융관련기관 집적, 조선해양 클러스터 정부지원
최명철 · 이상철(2021)	해외사례 참고	해양금융 전문기관 설립, 해양개발은행 등
김영재(2021)	부산 통계자료 참고	금융특구, 과생상품거래소 도입, 해양금융은행 설립, 위안화 역외허브 시장, 금융중심지 추진기구 설립
안상진 · 정재용 · 구형건 · 안세룡(2022)	역사적 고찰 (해외사례참고)	노인지원 금융도시, ESG 관련 금융생태계 조성 환적항 역할 연계 금융서비스 개발
안순구 · 윤희성(2022)	비즈니스 모델링	선박금융 STO 모델 도입을 통한 민간선박금융 활성화
안순구 · 이민규(2023)	문헌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링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활성화 방안 및 연계생태계 제안
안순구 · 윤희성(2023)	비즈니스 모델링	해양탄소금융 적용과 디지털 금융연계를 통한 선진 해양금융생태계 육성

김명희 · 이기환 · 양혁준(2016)은 부산이 해양금융중심지로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들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했다. 정량 및 정성적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해양금융기관의 집적이었으며 이어서 자본의 확보, 그리고 조선 해양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최근 진행된 안상진 외(2022)에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한 역사적 고찰에 근거해 부산내 ESG관련 금융생태계 조성, 환적항 연계 금융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안순구 ·

윤희성(2022; 2023)과 안순구·이민규(2023)에서는 각각 선박금융 STO 도입과 부산디지털 자산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부산의 혁신 금융생태계 조성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그간 정부의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설정에 공헌했다.⁷⁾ 부산 금융중심지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안건으로 해외금융기관 유치, 신(新)금융 생태계 조성, 금융중심지 경쟁을 위한 연구 진행이 주요 사안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호선(201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조성을 위한 인프라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블록체인을 적용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문현금융단지에 BIFC 준공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들이 이전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대한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이전 연구들은 근본적으로 국내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논의를 조성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어 이론 및 실무적으로 공헌하였다.

이전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각기 다른 정책과 전략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어떻게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다수의 경제 및 경영학자들에 의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서 고려되었으며, 기업 다각화(Ahuja and Novelli, 2017), 허브생태계 조성(Cennamo et al., 2018), 플랫폼 경쟁(McIntyre et al., 2021)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이전 연구를 통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연구의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허브 생태계 구성과 경쟁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허브 생태계 이론(Gawer, 2014; 2021, Cennamo et al., 2018, Shipilov and Gawer, 2020)을 적용해 금융중심지를 새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특정 이론 혹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현상을 해석할 때 하나의 이점은 해당 현상에 대한 통합적 관찰과 이해가 가능하며 기대하는 결과를 위해 메커니즘을 고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cIntyre and Subramaniam, 2009; Rietveld and Schilling, 2021). 이에 따라 본연구는 허브 생태계 이론을 적용해 아래와 같이 금융중심지를 연역적으로 재해석 및 설명하였다.

3. 금융중심지의 정의

현재까지 금융중심지에 대한 해석은 <표 2>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주로 이종필(2011)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들이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장소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의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중심지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7)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6차 기본계획이 23년 06월 발표.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데 금융중심지를 금융기관들의 물리적 접근성이 높으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소로서 고려하고 있다(Chen and Chen, 2015; Church, 2017). 금융중심지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물리적 집적을 통해 금융중심지 소속 기업들이 금융중심지로부터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 내용으로 고려되고 있다(Church, 2017).

<표 2>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주요연구

이전연구	금융중심지에 대한 정의
이종필(2011)	다수의 금융기관이 자금의 조달·거래·운용 및 그 밖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의 금융거래로 정의
Chen and Chen(2015)	“Measured by the geographic scope of the services offered, financial centers can be classified as national, regional, or interational.”
Church(2017)	“...a centralized location where various financial intermediaries, both foreign and domestic, come together to coordinate their activities.”
금융중심지의 조성 발전에 관한 법률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

한편,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금융의 발달에 따라 기존에 강조된 금융기관들의 물리적 접근성이 여전히 금융중심지에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데(Church, 2018), 이는 비대면적으로도 정보교환과 디지털 금융 기술 구현으로 금융거래가 세계 어디에서든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금융중심지 연구는 여전히 금융중심지의 특징인 금융기관의 물리적 밀집이 중요하나, 금융중심지의 존재와 정체성 유지를 위해 참여 금융기관들이 금융중심지로부터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Church, 2017). 이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당위성 논의를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현재까지 주로 금융중심지에 대한 연역적 해석은 지리적 접근성 혹은 물리적 밀집성(Physical Proximities)에 중점을 두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금융 거래가 부상함에 따라 기존 금융중심지의 정의에 대한 효용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 금융중심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존의 물리적 밀집성을 보완해 새로운 해석과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Mainelli, 2006).

4.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허브(플랫폼) 생태계 조성

이처럼 이전 연구들에서는 금융중심지의 정의에 있어 금융기관들의 집적을 주로

강조되었으며 금융기관들의 물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금융 네트워크(Network)로 일컬어졌다. 즉, 금융중심지 구성에 있어 주로 금융기관의 집적에 대한 공급자적 측면(Supply-side)이 주로 강조되었다(이종필, 2011; Chen and Chen, 2015; Church, 2017). 하지만 금융중심지에서 강조되는 금융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필히 매칭되어야 하며 이는 금융허브 생태계의 구현을 의미한다(양오석·민상기, 2009; Mainelli, 2006). 즉, 기존에 강조되었던 공급측 양성과 함께 수요측 또한 함께 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 공급측 논의와 함께 기업 및 개인과 같은 금융수요자적 측면(Demand-side)에서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구현되고 있는 금융중심지 정책들 또한 금융수요측 양성을 위해 대국민 금융교육과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금융중심지와 허브(플랫폼) 생태계 성장의 연역적 일치성>

금융중심지	허브 생태계
금융기관(공급자)과 금융수요자 간의 매칭: 금융기관과 수요자의 계속된 양과 질적 참여를 통해 금융중심지 성장	수요와 공급의 매칭: 수요 및 공급측의 계속된 참여를 통해 생태계 성장

이에 본 연구는 금융중심지의 수요와 공급의 매개라는 측면과 허브 생태계 구현이라는 점에 연역적 중점을 두어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허브(플랫폼) 생태계 발현으로 해석한다. 금융중심지와 허브 생태계는 <표 3>과 같이 연역적 일치성이 보여진다. 다음 섹션에서는 금융중심지의 허브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금융허브 조성 메커니즘을 규명한 프레임워크를 논의한다.

5.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금융허브 조성 프레임워크

체계적인 메커니즘 정립을 위해 <표 4>와 같이 허브(플랫폼) 생태계 조성 전략을 기반으로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우선 경영전략 학자들은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해 ‘Pricing Strategy’라고 불리는 가격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기초로 생태계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McIntyre and Subramaniam, 2009; Rietveld and Schilling, 2021; Ahn, 2021). 예를 들면 거래관계에 있어 수요측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공급측의 참여 촉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공급측의 참여가 수요측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안순구·윤희성, 2022, 2023). 이에 따라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 및 전략학자들은 수요(혹은 공급)측에 보조금(Subsidization), 혹은 서비스를 무료로 공급하여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참여하는 공급(혹은 수요)측에 요금을 과금할 것을 제안했다(Julien, 2011; Bryce et al., 2011).

<표 4> 허브생태계 조성 전략에 기반한 금융허브 생태계 조성 프레임워크

허브생태계 조성 전략			금융허브 생태계 조성 전략		
전략	세부전략	세부내용	전략	세부전략	세부내용
수요-공급 육성	가격 및 인센티브 부여 (Pricing & Incentive)	플랫폼 사용촉진을 위해 플랫폼 이용료 보조 혹은 무료화로 사용자의 플랫폼 진입과 사용 촉진	수요-공급 육성	조세개혁과 인센티브 부여, 규제완화, 역외금융조성	수요 및 공급측 유치와 참여 가속화, 외환 및 금융거래 활성화
허브 차별화	차별전략 (Quality Differentiation)	특정 서비스 혹은 생태계에 집중하여 플랫폼 성장 도모	레거시 중심지와 차별화	지속가능금융, 해양금융, 블록체인/크립토 생태계 조성	기존 레거시 금융중심지 경쟁을 위한 차별적 금융생태계 구축
혁신 생태계 전환	오픈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Complementary innovations)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개방하여 공급망 및 제3자들과 함께 보완혁신을 기대	혁신 생태계 조성	선박금융 STO, 해양 탄소금융, CBDC연계 생태계 조성	민관연계 혁신 금융모델 조성, 블록체인 등 선도기술을 적용한 선도금융모델 상용화

대표적인 예로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으며 2000년대 전후로 한때 유료 서비스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급되었으나 유튜브 등 플랫폼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모으는 한편, 기업에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과금하여 플랫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Ahn and Baden-fuller, 2023).

이전 금융중심지 연구에서도 위 플랫폼 전략과 일치하는 메커니즘 구현을 위해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해외 금융기업 유치를 위해 법 및 규제적 개선과 간소화를 통해 해외금융기업의 부산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종필, 2015; 이호선, 2016), 부산을 역외금융센터로 지정하여 현재 국내 금융규제 및 제도와 차별되는 독립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외금융기관을 유치하는 정책(김영재 외, 2010), 그리고 부산에 진입하는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글로벌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이호선, 2016)이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해외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금융생태계에 있어 상업은행, 자산운용사 등 공급측의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급측 참여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Pricing Strategy로 불리는 플랫폼의 가격 및 인센티브 부여 전략과도 일치한다.

정리하자면 금융허브 조성 주요 전략으로서 수요-공급 육성 전략을 <표 4>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수요 혹은 공급측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선, 인센티브 제공, 역외금융 제공과 같은 금융중심지 정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경영학자들은 생태계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Reisinger et al., 2009; Godes et al., 2009; Casadesus-Masanell and Hervás-drane, 2010; Casadesus-Masanell and Zhu, 2013). 이는 퍼스트 무버로서 진입한 최초 플랫폼과 경쟁을 위한 것이다. 퍼스트 무버 플랫폼은 수요-공급측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계속된 사용자 참여와 유지가 가능하며 이는 후발주자들에 대한 주요 진입장벽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다수의 학자들이 제시했다. 즉 퍼스트 무버의 네트워크효과로 수요-공급측이 지속적인 참여증가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이에 따라 후발 진입자들의 시장진입과 경쟁이 근원적으로 어려움이 논의되었다(Schilling, 2002). 이러한 퍼스트 무버와의 경쟁을 위해 이전 연구들은 퍼스트 무버와는 다른 차별적 생태계 구현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콘솔게임 플랫폼에서 주류 플랫폼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box에 대해 닌텐도사의 Wii 플랫폼은 동적인 움직임의 강조하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중점적으로 상용화하였다(Anderson et al., 2014). 이에 따라 기존 유저 전문성이 요구되는 플레이스테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플랫폼들과 확연히 구별되어 기존 플랫폼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별적 플랫폼 전략의 중요성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안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도 논의 되었다. 학자들은 핀테크 생태계 양성(이호선, 2016), ESG 관련 금융생태계 조성(안상진 외, 2022), 위안화 프라이빗 बैं킹거래 활성화(황영순, 2014)와 같은 생태계 차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퍼스트 무버로 대두되는 런던, 뉴욕 등 기존 레거시 금융중심지와 경쟁 어려움 때문인데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기존 주요 도시들은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여 수요측과 공급측의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들이 모여 금융중심지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레거시 금융중심지와는 차별화 되는 생태계 발전을 통해 부산금융중심지의 경쟁력제고와 생태계 확장에 대한 구상을 했다.

이에 따라 금융허브 조성 주요 전략으로서 <표 4>와 같이 ‘레거시 중심지와 차별화’를 구분할 수 있으며 런던, 뉴욕과 같은 주요 중심지와 차별적 생태계를 발전할 수 있는 육성 전략들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기존 대부분의 허브 생태계 연구들은 수요-공급간의 거래 생태계 구성과 허브 플랫폼간의 경쟁에 대해 집중하였다. 이러한 거래 플랫폼에 대한 기존 연구 중점은 최근 혁신 생태계 구성과 경쟁으로 범위 확대와 변화를 맞이했다. 이는 기술변화와 함께 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및 애플의 iOS와 같이 혁신 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구현이 전산업분야에 영향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 플랫폼은 오픈이노베이션(Chesbrough, 2010)을 지향해 제3자(Third parties)를 기존 플랫폼에 초청하여 지속적인 보완적 혁신(Complementary Innovations)을 독려해 플랫폼의 잠재적 혁신 범위가 이론적

으로는 한계가 없어지며(Gawer, 2014; 2021) 지속적인 혁신가치 창출과 획득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한다. 이와 같은 플랫폼 모델은 특정 산업의 수요와 공급 매칭에 집중한 거래플랫폼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혁신 플랫폼은 거래 플랫폼과 비교해 지속적인 혁신 가치창출과 생태계 구성원 유입으로 경제 및 경영학자들은 장기적인 경쟁우위 확보와 우수성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다(Gawer, 2021; 2022). 금융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뚜렷한데 기술 발달로 인한 ‘빅블러’ 현상으로 기존 검색, 메시징, 쇼핑 플랫폼들이 결제와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기업들과 테크기업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금융중심지 조성과 혁신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연계성을 최근 연구들이 제기하기 시작했다(안순구 윤희성, 2022; 2023a, 2023b). 해당 연구들은 디지털 자산, 선박금융, 탄소금융 분야에 있어 혁신금융플랫폼 생태계 조성으로 부산국제금융중심지 발전에 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거래소, 선박금융 플랫폼, 해양탄소금융 플랫폼 조성을 통해 핀테크 및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인 보완적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금융중심지 생태계에 대한 구상을 연구했다. 최근 런던, 싱가포르 그리고 급속도로 도약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의 경우에도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에 대한 혁신플랫폼을 지향하여 자국 및 해외 스타트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양성을 독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혁신금융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가 향후 금융중심지 경쟁우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으로서 <표 4>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고려되며, 보완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육성 전략이 이에 해당된다.

6. 신흥금융중심지들의 금융허브 전략 적용사례

앞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부산과 신진 글로벌금융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표 5>와 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인 성장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는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외금융기관 유입을 가속하며 역외금융시장을 조성해 금융수요와 공급을 양성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금융시장발전을 위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해 자체적으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전략을 시행했다. 해외금융기관과 자금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1960년대 이후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1968년 역외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구분하는 정책(ACU-DBU Divide)을 기반으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이원화해 역외금융시장으로서 발전하였다. 이후 Simex 등 금융선물거래소를 설치하며 외환 자본 유치, 외환거래에 있어 세금 등 철폐하며 역외금융시장으로서 매력도를 제고하였다.

역외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싱가포르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혔는데 1990년 기준 해외금융기관 125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자국 보유 외환 2배 규모의 역외금융자산이 역외계정인 Asian Current Unit에 운용되었다.

<표 5> 금융허브 생태계 조성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금융중심지 육성 비교

	싱가포르	두바이	부산
수요-공급 육성	국내-역외금융 이원화	국내-역외금융 이원화 금융센터 자체 행정권 및 사법권 적용을 통한 규제완화	정책금융기관 설립 및 이전 위주의 공급측 양성 생태계 조성
레거시 중심지와 차별화	자산운용 생태계 (VCC제도)	디지털자산 등 핀테크 생태계 육성	-
혁신생태계 조성	가상자산(크립토) 및 증권토큰 발행 및 유통 허용(ICO, STO)	-	-

이와 함께 런던과 뉴욕 등 레거시 금융중심지와의 차별화를 위한 허브전략을 구현했다. 혁신금융 구현을 위해 싱가포르는 디지털 금융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 8월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도입과 결제법안(the Payment Service Act)을 도입해 ICO와 증권토큰에 대한 상용화를 구분하여 법·규제를 마련해 허용하고 있어 RWA와 가상자산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케이맨 제도형 펀드 제도인 VCC를 도입해 출범이래 약 1천 개가 넘는 펀드를 유치하여 자산운용업 특화 생태계도 육성하고 있다.

최근 급성장한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또한 수요-공급 육성과 레거시 금융과의 차별화를 지향하는 허브전략을 시행했다. 런던, 뉴욕, 싱가포르 등 기존 금융중심지와 비교해 비교적 후발주자로 출발한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UAE 기존 금융법률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파격적인 정책과 전략을 펼쳤다. 두바이는 2004년 연방헌법을 개정하여 금융규제자유지역(Regulation free zone)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서 금융자유구역법을 제정했다. 금융자유구역법에 의해 은행, 증권 등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UAE 국내 영업활동은 불허해 국내와 국제금융 시장의 이원화를 지향하였다.

두바이는 국제-국내금융 이원화로 국제금융센터 내의 금융기관 설립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을 100% 인정하며, 외국은행 지점에 부과하는 20%의 법인세를 50년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DIFC 자체 법령을 마련해 영미법 기준으로 20개의 개별 법률을 설정하고 독립적인 법원(DIFC Courts)을 두어 금융규제자유지역으로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육성 전용공간인 Fintech Hive와 ‘Dubai Future District Fund⁸⁾’ 등 대규모 펀드 설립을 통해 기존금융중심지에 견주어 핀테크 생태계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의 산업투자를 위한 해외투자자의 관문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관문으로서 고속 성장을 하였다. 홍콩은 1960년 말까지 다수의 금융기관 유치를 하여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하였으나 싱가포르가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여 1978년 은행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적용하여 국제금융시장을 조성하였다. 1982년 외화예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과감한 조세제도 적용으로 해외금융기관들을 급속도로 유치하였다(잔동구·전승철, 2004). 특히 2004년부터 세계 최초로 위안화 역외금융시장을 조성해 예금, 환전, 채권 등 역외금융거래를 허용해 세계적인 위안화 금융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이전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자유성이 보장되지 않아 해외금융기관들의 탈 홍콩행 움직임 또한 확인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와 비교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연구는 <표 5>와 <표 6>과 같이 주로 수요-공급 육성 전략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급측 양성에 집중하여 이전 연구들은 정책금융기관 이전, 해외금융기관 유치, 해양 금융기관 및 거래소 설립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이전 연구에 기반해 주요 시책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문헌금융단지 이전을 추진하였고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 설립 이후 다수의 정책금융기관 유치가 부산국제금융중심지 구성에 주요 성과로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특구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이 주요 시책으로 발표되었다. 기회발전특구와 글로벌 허브 특별법 발의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금융특구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제도와 인센티브 부여로 부산에 다수의 금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으로 차세대 금융산업을 육성하며 실물자산과 토큰증권 상품을 상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은 또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부산에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제도를 이용해 실증 특례를 받은 기업은 23년 12월 기준 11개 사로서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조성된 주요 육성 생태계는 <표 6>과 같이 주로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생태계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금융허브로서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와 두바이 사례와 같이 민간금융에 대한 수요-공급 육성과 레거시 중심지와

8) 2022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주도로 설립된 펀드로 AED 1billion 규모로 조성되었다. 디지털과 지속가능 금융에 중점을 두어 미래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차별화, 그리고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분석된다.

<표 6> 금융허브 생태계 조성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이전 연구와 주요 시책 분류

금융허브 생태계 조성 전략	이전연구	주요시책
수요-공급 육성	[연구문건: 11] (공급집중) 정책금융기관 이전, 해외금융기관 유치, 위안화 역외허브 시장, 해양금융기관 설립, 해운거래소 설립	(공급집중) 정책금융기관 문헌 금융단지 이전, 금융특구 추진,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추진
레거시 중심지와 차별화	[연구문건: 1] 노인지원 금융도시, 환적항 역할 연계 금융서비스 (2)	-
혁신생태계 조성	[연구문건: 3]선박금융STO, 디지털자산 연계 생태계 조성, 해양 디지털-탄소금융 생태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11개 기업 (2019-)

Ⅲ. 부산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제언

앞장에서는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주요 금융중심지 분석을 통해 프레임워크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부산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제언은 <표 7>과 같다. 프레임워크에서 밝힌 각 메커니즘을 적용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발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첫째, 수요-공급육성을 위한 허브생태계 조성전략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 절차와 조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역외금융 활성화 필요성이 산업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신흥 금융중심지로 거론되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금융중심지 경우 역외금융 중요성을 인식해 관련 금융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 마련⁹⁾으로 세계적인 조세회피처로 거론되고 있다.¹⁰⁾ 대한민국과 유사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역외 금융제도인 JOM(Japanese Offshore Market)을 1986년 개설했다. 일본 JOM의 경우 비거주자들의 엔-달러 거래가 허용되며 증권투자 등 증권시장 이용은 제한된다. JOM은 출시 2년 만에 싱가포르의 역외금융 규모를 추월했으며 이와 같은 성장은 기축통화인 엔화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9) 예를 들면 가변자본기업(VCC)제도의 경우 130 Resident Tax Exemption, 13U Enhanced-Tier Tax Exemption을 적용해 조세감면 적용.

10) 세계적인 조세회피처의 순위를 발표하는 Financial Secrecy Index에 따르면 23년 기준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두바이(UAE) 8위로 등재.

<표 7> 허브생태계 조성 전략에 기반한 금융허브 생태계 조성 프레임워크

금융허브 생태계 조성 전략	부산 금융중심지 적용	세부 전략구현 방안
수요-공급 육성	O	금융기관진입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조세개선 국내-역외금융 이원화
레거시 중심지와 차별화	O	디지털-지속가능-해양금융 연계 육성 : KDB, KEXIM, K-Sure 육성
혁신생태계 조성	O	혁신탄소금융 생태계 조성(VCM-CCM-디지털자산 거래 연계) 선박금융 STO 조각투자 구현

대한민국 또한 1988년 국내에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계정 설치를 허용해 부산도 현행체도로 역외금융조성이 가능하나 비거주자 대상으로 외화자금 대출만을 허용하고 있고 주체가 외국환은행으로 제한되어 있어 역외금융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싱가포르 등 타 금융중심지 사례를 감안할 때 역외금융 활성화를 위해 역외금융 취급 기관과 범위 확장에 대한 필요함이 제기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 펀드, 채권,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역외금융서비스를 허용하여 국제금융 유치와 거래를 도모하였다(강형철 외, 2008).

또한 조세제도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세가 각각 16.5%와 17%이며 국내의 법인세 25% 규모와 비교했을 때 부산 금융중심지의 조세제도 열등성과 개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인센티브 부여 개념으로 부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¹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외 기업에 3년 동안 법인세·소득세 100%를 감면하며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액해 주고 있으나 부산 금융중심지에서 해당 조세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부산 금융중심지 출범 이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금융중심지의 조세제도와 감면 혜택에 견줄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특별법 발의안의 경우 부산 국제금융특구를 지정하여 금융특구 내 금융기관 인·허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조세제도 특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조세제도 개선 방안 제안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 필요성은 중앙정부의 금융정책과도 연관되는데 현재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해양금융거래도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참조.

차별화된 조세 및 금융제도의 발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의 동일한 금융 체제 아래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금융자본 이전과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부산만의 차별화된 금융시스템과 조세제도 발현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레거시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를 위해 해양·디지털·지속가능을 연계한 특화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부산이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향후 계속된 발전과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디지털과 지속가능 금융의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EU-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IMO의 친환경 규제 시행으로 해양산업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¹²⁾, 선박금융 조각투자 모델의 구현으로 디지털 해양금융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안순구·윤희성, 2023).

이처럼 해양·디지털·지속가능금융을 함께 육성하기 위해 부산 금융허브 조성 관점에서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추가 정책금융기관 유치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 부산 금융중심지에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는 2014년 설립되어 10조 이상의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융산업 영역에 있어 선박금융 제공에 한정되어 운용되고 있었다. 해양, 디지털, 지속가능 요소의 상호연계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 창업생태계와 지속가능금융의 주요 조성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는 KDB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유치로 디지털, 지속가능, 해양금융분야의 부산 금융중심지의 공급 역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공기업들의 부산 입점을 통한 집적은 금융중심지 생태계 조성에 있어 공급측 참여 확대를 의미하며, 네트워크 효과로 금융수요측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 금융중심지 허브(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¹³⁾

셋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해 혁신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앞장에서 기술했듯 혁신금융 생태계는 보완적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음에 따라 디지털·지속가능·해양금융을 연계한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구상해 부산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혁신금융생태계 구현의 예를 들면 디지털-탄소금융 생태계 조성, 선박금융 STO 모델 도입, CBDC 연계 생태계 조성을 아래와 같이 도모할 수 있다.

부산 금융중심지는 세계적인 탄소금융중심지로서 잠재성을 갖고 있는데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ompliance Carbon market)인 K-ETS가 부산에 2015년부터 운영

12) EU-ETS는 2024년부터 EU 향만에 기항하는 5,000GT 이상의 선박(화물 혹은 여객선)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배출권 제출을 적용하고 있음.

13) 대표적인 사례로 예탁결제원의 부산금융중심지 이전에 따라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 시티뱅크가 입점하였고 예탁결제원의 협력 업무를 담당.

되고 있으며 거래량 기준 2020년 하반기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거래제 (CCM)와 민간 주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VCM)가 있다. 최근 지속가능전환의 중요성으로 산업활동의 탄소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ETS 등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30개 이상의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액의 경우 22년 기준 9,090억 불을 달성했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또한 22년 20억 미화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2030년까지 최대 400억 미화달러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탄소금융시장의 동향은 VCM과 CCM간의 상호연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VCM의 탄소배출권이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연동되고 있다. 이 같은 동향은 부산의 탄소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VCM-CCM-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연계된 탄소 금융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안순구·윤희성, 2023b). 친환경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들에게 탄소상쇄권을 제공하는 해양탄소금융을 도입하며 K-ETS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연계한 혁신금융 생태계 도모로 선도 해양지속가능금융 생태계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안순구·윤희성, 2023b).

선박금융 STO 모델의 경우 디지털과 해양선박금융을 연계한 혁신금융으로, 해당 모델의 경우 선박자산에 대한 토큰증권 구현으로 조각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민간선박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모델이다(안순구·윤희성, 2022; Z/Yen, 2024). 영국소재 Infinity Maritime은 조각투자 플랫폼을 구현해 선박투자를 촉진하고 있어 선진 금융중심지에서는 이미 해당 모델을 구현해 혁신 선박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도 CBDC 생태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금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CBDC 생태계의 경우 BIS에서 Innovation Hub를 구축하며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등 7개 이상의 국가들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BIS와 한국은행간의 CBDC 추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한국은행에서 활용성 테스트 계획 또한 발표하는 등 국내 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서 지정되었으며,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있고 디지털 자산거래소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어 CBDC 연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당위성이 있다. 차세대 화폐 패러다임이 될 CBDC의 I, II, III 형¹⁴⁾에 대한 각 연계 생태계를 조성해 부산에 차세대 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14)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의하면 I, II형은 각각 예금토큰과 전자화폐 개념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III 형의 경우 외부 네트워크와 연계가 가능해 이론적으로 외부 자산거래소와 금융서비스들과의 연동 가능.

IV. 결 론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5년이 지났다. 그간 문헌금융단지를 중심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로 대표되는 인프라와 정책금융기관 생태계를 조성하였으나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해양금융 또한 서울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에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필요성이 산업과 학계에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전 연구와 정책들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 디지털·지속가능·해양금융이 연계된 민간 중심의 금융중심지 생태계 육성을 위해 레거시 금융중심지와의 차별화와 혁신생태계 육성을 중심으로 제언을 진행하였다. 디지털·지속가능·해양 금융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는 부산이 해양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 중이나 디지털과 지속가능금융이 주요 변화 및 혁신 요소로서 향후 해양산업과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이다.

부산은 디지털·지속가능·해양금융을 함께 선도하는 금융중심지로서 관련 제도와 역량을 다져왔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되어 10여 개 이상의 기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혁신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 생태계의 경우 대한민국은 23년 말 기준 세계 7위 규모의 SRI채권 시장¹⁵⁾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산 금융중심지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SRI채권 발행의 4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대두에 따라 지속가능금융이 차세대 금융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고 각 금융센터가 지속가능금융중심지로서 변화와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¹⁶⁾

이처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15년간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시사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방안을 바탕으로 부산 금융중심지가 진정한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지난 15년간 진행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연구를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진행되어 이 연구에서 시사한 부산 금융허브 조성 방안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주요 허브 조성 전략들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각 전략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와 다수 전략 발현의 시너지적 상관관계를 시사할 것을 기대해 본다.

15) 지속가능금융의 대표 부문인 채권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SRI채권(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잔액은 3조 9,530억 달러로 추산되며, 매년 전체 채권발행의 14%가 넘는 시장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해 2021년부터 10배 넘는 고속 성장을 보임.

16) 글로벌 영국계 컨설팅사 Z/Yen의 경우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와 별개로 국제녹색금융센터지수(GGFI, Global Green Financial Centre)를 2018년부터 발표.

참 고 문 헌

- 강형철 · 김민석 · 김한수 · 송민규 (2008), “금융허브경쟁력 제고방안 및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병곤 · 김동욱 · 김동희 (2010), “정보비대칭과 배당정책: 배당신호가설 검증,” 금융공학연구, 제9권 제1호, 99-124.
- 김명희 · 이기환 · 양혁준 (2016), “해양금융 중심도시를 위한 부산의 발전요인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2권 제3호, 155-175.
- 김영재 · 박은엽 (2016), “부산금융중심지 구축현황과 정책제안,” 경제연구, 제34권 제4호, 191-213.
- 김영재 · 박수남 · 김진건 (2010),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발전전략,” 지역사회연구, 제18권 제3호, 105-130.
- 손판도 · 이준석 (2015), “배당의 라이프사이클이 존재하는가?,” 금융공학연구, 제14권 제1호, 133-151.
- 신민식 · 김수은 (2014), “기업의 채권등급과 배당스무딩간의 관계,” 금융지식연구, 제12권 제1호, 109-143.
- 안상진 · 정재웅 · 구형건 · 안세룡 (2022), “부산의 금융중심지 성장 방안에 대한 역사적 고찰,” 경영연구, 제37권 제4호, 127-141.
- 안순구 · 윤희성 (2022),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박금융 STO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8권 제1호, 31-47.
- 안순구 · 이민규 (2023), “플랫폼 운영전략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한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시장진입 전략 수립,” 한국혁신학회지 제18권 제2호, 125-153.
- 안순구 · 윤희성 (2023as), “해양산업의 디지털-탈탄소 전환에 따른 비즈니스모델 변화에 대한 인지적 관점의탐색적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9권 제1호, 17-34.
- 안순구 · 윤희성 (2023b), “지속가능전환 시기를 맞은 해양산업의 탄소거래 및 해양금융 생태계 구축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9권 제4호, 107-125.
- 이종필 (2008), “더블린 국제금융서비스센터 (IFSC) 벤치마킹,” 부산발전포럼, 제2008권 제112호, 56-57.
- 이종필 (2011),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공조건,” BDI 정책포커스, 제99권, 1-12.
- 이종필 (2015), “부산금융중심지 성공 이후 노력이 좌우,” 부산발전포럼, 제151권, 16-18.
- 이호선 (2016),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10-19.
- 이기환 (2019), “세계 최고 해운 강국 그리스 해운기업의 자금조달,” 해양한국, 제2019권

제6호, 108-111.

잔동구·전승철 (2004), “홍콩 및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보고서 제165호.

황영순 (2015), “중국 금융·외환시장 성장에 따른 부산금융중심지 대응전략 연구,” (ISBN: 978-89-5896-581-7). 부산발전포럼, 제154권, 106-108.

Anderson, N., K. Potočník, and J. Zhou (2014), “Innovation and creativity in organizations: A state-of-the-science review, prospective commentary, and guiding framework,” *Journal of Management*, 40(5), 1297-1333.

Ahn, S. and C. Baden-Fuller (2023), “Framing and reframing digital business models: the global messenger industry,” In *Research Handbook on Digital Strategy*(pp. 102-125), Edward Elgar Publishing.

Ahuja, G. and E. Novelli (2017), “Redirecting research efforts on the diversification-performance linkage: The search for synergy,”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11(1), 342-390.

Bryce, D. J., J. H. Dyer, and N. W. Hatch (2011), “Competing against free,” *Harvard Business Review*, 89(6), 104-111

Casadesus-Masanell, R. and A. Hervas-Drane (2010), “Peer-to-peer file sharing and the market for digital information good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19(2), 333-373.

Casadesus-Masanell, R. and F. Zhu (2013),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competitive imitation: The case of sponsor-based business model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4(4), 464-482.

Cennamo, C., H. Ozalp, and T. Kretschmer (2018), “Platform architecture and quality trade-offs of multihoming complement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9(2), 461-478.

Chen, K. and G. Chen (2015), “The ris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in mainland China,” *Cities*, 47, 10-22.

Chesbrough, H (2010), “Business model innovation: opportunities and barriers,” *Long Range Planning*, 43(2-3), 354-363.

Church, A (2017), “The rise-and-fall of leading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Factors and application,” *Mich. Bus. & Entrepreneurial L. Rev.*, 7, 283.

Gawer, A (2014), “Bridging differing perspectives on technological platforms: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Research Policy*, 43(7), 1239-1249.

- Gawer, A (2021), "Digital platforms' boundaries: The interplay of firm scope, platform sides, and digital interfaces," *Long Range Planning*, 54(5), 102045.
- Godes, D., E. Ofek, and M. Sarvary (2009), "Content vs. advertising: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media firm strategy," *Marketing Science*, 28(1), 20-35.
- Jullien, B (2011), "Competition in multi-sided markets: Divide and conquer," *American Economic Journal: Microeconomics*, 3(4), 186-219.
- Mainelli, M (2006), "Global financial centers: One, two, three... infinity?," *The Journal of Risk Finance*, 7(2).
- McIntyre, D. P. and M. Subramaniam (2009), "Strategy in network industrie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35(6), 1494-1517.
- Reisinger, M., L. Ressner, and R. Schmidtke (2009), "Two-sided markets with pecuniary and participation externalities,"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57(1), 32-57.
- Rietveld, J. and M. A. Schilling (2021), "Platform competition: A systematic and interdisciplinary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anagement*, 47(6), 1528-1563.
- Schilling, M. A (2002), "Technology success and failure in winner-take-all markets: The impact of learning orientation, timing, and network extern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2), 387-398.
- Shipilov, A. and A. Gawer (2020), "Integrating research on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nd ecosystems,"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14(1), 92-121.
- Wardle, M (2020), "Focus on Busan 2020," *Financial Centre Futures*, Z/Yen Group.

Abstract

Toward the Busan Global Financial Hub: A Framework for Creating a Financial Hub Ecosystem and Developing Agendas for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Soongoo Ahn**

This study presents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a financial hub, aimed at transforming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into a Global Financial Hub. Since the government designated Seoul and Busan as financial hubs in 2009, various studies and strategies have been proposed, and policies implemented to foster financial hubs.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in discussions that could clarify the mechanisms for creating financial hubs with strategy implementation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for creating a financial hub, based on the theory of hub (platform) ecosystem creation. Building on this framework, it elucidates the mechanisms of major financial center policies and then explains the growth of overseas financial centers. Finally, based on the proposed framework, it discusses strategies for nurturing the development of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into a global financial hub.

Key words: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Global Financial Hub, Hub Ecosystem, Finance Center Competition, Hub Ecosystem Competition

* Director, Busan Finance Center, Tel: +82-51-647-9051, E-mail: sg@kbfc.or.kr